

朝鮮日報

chosun.com

부산·경남

2007년 5월 15일 화요일 라6

“양국간 의견교환 기회 필요”

한일해저터널 심포지엄

한일해저터널 관련 국제심포지엄이 14일 부산에서 열렸다.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원이 ‘한일해저터널과 부산의 선택’이란 주제로 공동 주최한 이 심포지엄은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30여분간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10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심포지엄에선 노자와 다이조우(野澤太三) 일한터널연구회 회장, 허윤수 부산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하재완 중앙대 산업과 학대학장 등 3명이 주제 발표를 했다.

노자와 회장은 ‘일한터널계획에 대하여’란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일한터널계획에서의 기점과 종점으론 일본의 후쿠오카와 한국의 부산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향후 과제로선 일본의 오사카, 한국의 서울을 배후지로 고려하고 있으며 장래는 도쿄, 북경까지 시야에 넣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자와 회장은 또, “공사기간은 15~20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라며 “그러나 양국 연구자, 각종 단체들이 협력해 터널에 관한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역할 등을 연구하여 제대로 된 전망을 먼저 수립해야 하고, 양국 정부간 의견 교환 기회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윤수 부연구위원은 ‘물류측면에서의 한일해저터널 활용 가능성-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중심으로’란 발제를 통해 “대학·국책연구원 등 전문가 35명을 상대로 한일해저터널의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해저터널로 인해 부산항 부가가치 물류기능은 지금과 별 달라지는 것이 없을 전망’이란 응답이 50.4%였다”며 “반면 ‘부가물류 기능확대, 물동량 증가 등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은 28.2%에 그쳤다”고 말했다.

박주영 기자

朝鮮日報（2007 年 5 月 15 日）釜山・慶南版

「両国間の意見交換の機会必要」

日韓海底トンネルシンポジウム

日韓海底トンネル関連の国際シンポジウムが 14 日、釜山で開かれた。

釜山市と釜山発展研究院が「日韓海底トンネルと釜山の選択」という主題で共同主催したこのシンポジウムは、この日午後 4 時から 2 時間 30 余分間、釜山ヨンジェ区ヨンサン洞 釜山市上水道事業本部 10 階会議室で行われた。シンポジウムでは野沢太三日韓トンネル研究会会長、ホ・ユンス釜山発展研究院副研究委員、ホ・ジェワン中央大産業科学大学長など 3 名が主題発表を行った。

野沢会長は「日韓トンネル計画に対して」という主題で発表し、「日韓トンネル計画の起点と終点としては、日本の福岡と韓国の釜山とすることを前提とする」とし、「今後の課題としては、日本の大阪、韓国のソウルを背後地と考慮しており、将来は東京、北京まで視野に入れ検討するもの」と話した。

野沢会長はまた、「工事期間は 15～20 年程度所要する見通し」とし、「しかし、両国の研究者、各種団体が協力してトンネルに関する技術的、経済的、社会的役割等を研究し、しっかりした見通しをまず樹立しなければならず、両国政府間の意見交換の機会を作ることも必要」と話した。

ホ・ユンス副研究委員は「物流面での日韓海底トンネルの活用可能性＝シナリオプランニング技法を中心として」という提案を通して「大学・国策研究院など専門家 35 人を対象に日韓海底トンネルの影響に対しアンケートを行った結果、“海底トンネルによって釜山港の付加価値物流機能は今と特に変わらない見通し”という回答が 50.4%だった」とし、「反面“付加物流機能拡大、物動量増加など大きな影響を与えるもの”という回答は 28.2%にとどまった」と話した。